

유럽 내 반도체 산업 및 기술정책 주간 브리핑

Vol. 21

패브로드컴, 스페인 반도체 공장 취소... 유럽 반도체 야망에 타격

핵심요약

2025.07.14

- Broadcom, 스페인 1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조립·테스트 공장(ATP) 투자 계획 협상 결렬로 철회
 - 이는 해당 프로젝트가 Broadcom의 글로벌 핵심 전략이 아니었고, 유럽 내 남부 지역의 산업 생태계 미비를 드러낸 사례
 - 스페인은 자체적으로 122.5억 유로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, 하지만 핵심 목표였던 대형 제조 시설 유치는 실패
- 반도체 투자 정책 구조가 기존 강국(북부)에 유리
 - 제조 인센티브로 쓰이는 FOAK 보조금 기준은 기존 산업 기반이 강한 지역에만 효과적
 - 독일 드레스덴 같은 지역에 투자 풀림 현상 발생 → 스페인, 이탈리아 등 남유럽은 구조적으로 대규모 제조 유치에 불리



시사점

① 정부의 보조금만으로는 산업 생태계 구성 불가

-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큰 보조금 규모(122.5억 유로)를 마련했음에도 대형 제조 시설 유치에 실패
- 성공적인 유치는 기술 인프라, 공급망, 인재, 고객 기반 등 복합적인 생태계가 선행되어야 함

② EU 반도체 전략의 구조적 불균형

- 칩스법은 EU 전체 전략이지만, 실제 자금 운영과 투자 결정은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음
- FOAK 보조금이 기존 선도국(독일 등)에 유리한 구조여서 지리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역설 발생

출처 <https://www.eetimes.com/broadcom-cancels-spain-fab-impacting-europe-semiconductor-ambitions/>

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독일과 유럽의 중요성

핵심요약

2025.07.15

- Merck, 반도체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독일과 유럽의 중요한 역할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개최
 - Merck, Siemens, Intel, TRUMPF, ZEISS 등 유럽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치사슬 전반의 전략적 협력 강조
 - 이들 기업은 AI 중심 고성능 반도체 기술에 있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,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주도권 강화 도모
 - 동시에 유럽은 숙련 인력 부족, 인프라 문제, 고비용 구조, 느린 행정 절차 등 구조적 장애 요인에 직면
 - 산업계는 혁신 기술 개발로, 정치권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으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



시사점

① 산업 간 협력이 유럽 기술 주권의 핵심 전략

- Merck, Siemens, Intel, TRUMPF, ZEISS 등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, 유럽이 개별 기술 강국을 넘어 공동 기술 블록으로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한다는 의미
-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협업은 단순한 기업 간 파트너십을 넘어, 유럽의 전략적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음

②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'유럽형 생태계' 구축 필요

- 반도체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복잡한 생태계 산업이며, 각국의 분산된 경쟁력을 유기적으로 연결 필요
- 유럽연합 차원에서 '단일 반도체 시장', 즉 규제 통합 및 공동 기술-인프라 투자 전략 필요

출처 <https://www.merckgroup.com/en/news/electronics-media-roundtable-15-07-2025.html>





독일, 기술 창업 육성을 위한 '스타트업 팩토리' 10곳 설립



핵심요약

2025.07.15

- 베를린, 2030년까지 전국에 10개의 '스타트업 팩토리(Start-up-Fabriken)' 설립 계획 발표
 - 각 팩토리는 최대 1,000만 유로의 국가 보조금을 받게 되며, 이에 민간 자본도 최소 동일한 규모로 매칭 투자
 - 이 계획은 뮌헨의 기업가 센터 UnternehmerTUM과 같은 성공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, 기술 및 연구 기반 창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목표
 - 각 스타트업 팩토리는 지역에 밀착된 형태로 운영되며, 대학, 연구기관,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
 -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25년 시작 예정, 초기 보조금 지원 기간은 5년

시사점

- ① 기술 중심 창업은 '인프라+자본+네트워크'가 결합된 구조적 지원이 핵심
 - 단순 창업지원금이 아니라, 물리적 거점(팩토리) + 공공-민간 공동투자 + 대학-산업체 연계 생태계 동시 설계
 - 이는 창업 초기 기업들이 기술 실증, 시제품 제작, 사업화 네트워크 확보까지 통합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
- ② 산학연 협력 없는 기술 창업은 지속 불가능
 - 각 스타트업 팩토리는 대학, 연구기관, 기업이 직접 참여하며 기술-인재-시장 연계 동시에 추구
 - 특히 기술 기반 창업은 연구 인프라와의 긴밀한 연결 없이는 현실화 어려움
 - 한국 등 타국가들도 단독 창업 지원보다 산학연 연계형 창업 시스템 강화 필요

출처 <https://evertiq.de/news/2025-07-15-deutschland-startet-zehn-startup-fabriken-zur-forderung-technologieorientierter-grundungen>

SPARC Foundry, Vigo에 포토닉 반도체 공장 건설 가속화



핵심요약

2025.07.16

- SPARC Foundry, Vigo에 포토닉 반도체 공장 건설 가속화
 - 공장은 Parque Tecnológico de Valladares에 위치하며,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

Vigo, 포토닉 반도체 공장	
투자 총액	1,720만 유로 (공공자금, PERTE Chip 지원)
공장 모델	'One-stop-shop' (설계~생산 일괄 수행)
생산 규모	연간 20,000개 웨이퍼 생산 예상
주요 소재	인화 인듐 (InP), 질화 갈륨 (GaN)
고용 창출 효과	직접 고용: 약 200명 (고급 기술 인력) / 간접 고용: 500명 이상

시사점

- ① '특새 기술 + 집중 투자' 전략의 성공 가능성
 - 포토닉 반도체라는 전략적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기술 분야에 집중함으로써, 대규모 팹 유치가 어려운 남유럽에서도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줌
 - 인화 인듐(InP), 질화 갈륨(GaN) 등 특수 소재 기반의 기술은 방산, 통신, 양자컴퓨팅 등 고부가가치 분야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
- ② PERTE Chip의 실질적인 효과 가시화
 - 스페인 정부의 반도체 전략(PERTE Chip) 중 가장 구체적인 하드웨어 성과로 평가 가능
 - 대형 글로벌 팹 유치는 실패했지만, 국내 기업 주도 특화형 반도체 생산시설 실현은 의미 있는 진전

출처 <https://evertiq.es/news/2025-07-16-sparc-foundry-acelera-la-construccion-de-la-planta-de-semiconductores-de-vigo>



오라클, 독일에 20억 달러 투자 -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



핵심요약

2025.07.17

- Oracle, 향후 5년간 독일에 20억 달러 투자하여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(OCI: Oracle Cloud Infrastructure)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겠다고 발표
 - 프랑크푸르트 리전 중심으로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
- 지원대상 : 독일 전 산업 및 공공 부문
 - 제조, 자동차, 에너지, 과학, 헬스케어 등 모든 산업군에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 제공

시사점

- ① 독일, 유럽 내 디지털·AI 인프라의 핵심 허브로 부상
 -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AI 인프라 확대는 독일이 유럽 내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
 - 단순한 시장 진출이 아닌 글로벌 기술기업의 장기적 투자처로서의 위상 강화
- ②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촉진 장치
 - 오라클 인프라는 AI 스타트업의 개발·훈련·배포 환경 직접 제공 → 초기 기업들이 고성능 연산 인프라에 접근 가능
 - 이는 AI 창업 문턱 낮추는 선순환 구조 형성
- ③ AI 기술 확산을 위한 '인프라 선투자'의 중요성
 - 클라우드와 고성능 AI 인프라 없이는 AI 활용 기업·산업 생태계가 성장하기 어려움
 - 오라클의 대규모 인프라 구축은 AI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기반 투자 선행 사례로 주목됨

출처 <https://evertiq.com/news/2025-07-17-oracle-to-invest-2-billion-in-ai-and-cloud-infrastructure-in-germany>

그리스, 반도체 전문 역량 센터(HCCC) 설립 발표



핵심요약

2025.07.17

- 그리스 정부, 자국 최초의 반도체 전문 역량 센터(Hellenic Chips Competence Centre, HCCC) 설립 발표
 - 이 사업은 그리스 신기술산업협회(HETiA), 개발부(Ministry of Development)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행
 - EU의 Microchips for Europ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유럽 반도체 공동사업(Chips JU)의 지원
 - 총 투자 : 유럽연합 363만 유로 + 국가 예산 363만 유로
- 그리스, EU 반도체 동맹 공식 참여
 - 9월 2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반도체 동맹 선언식(Semicon Alliance Declaration)에 그리스 서명 예정
 - 유럽 반도체 산업 강화에 대한 공식적 참여 의지 강조
- 유럽 전역에 공급할 갈륨 생산 투자 추진
 - 반도체 핵심 원소인 갈륨 생산을 자국에서 유치하여 EU 전체 공급망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예정

시사점

- ① 유럽 반도체 전략의 '참여국 다변화' 본격화
 - 기존 EU 반도체 산업은 독일, 프랑스 등 북부 중심의 집중 구조였으나, 그리스처럼 인프라가 약한 남유럽 국가들도 참여를 확대하며 지역 균형화 가능성 모색
- ② 원자재(갈륨) 기반의 공급망 전략 주목
 - 갈륨 생산 투자 계획은 소재 기반에서 반도체 가치사슬에 진입하려는 사례
 - 이는 첨단 제조가 어려운 국가도 원자재·공급망 기반으로 산업 내 입지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줌

출처 <https://www.tovima.com/finance/greece-to-establish-semiconductor-center/>